

# 도서관, 비치 아닌 배치를 고민할 때

건축가 조재원

비치와 배치, 비슷한 이 단어에는 생각보다 큰 차이가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비치(備置)를 '마련하여 갖추어 둠'이라고,

배치(配置)를 '사람이나 물자 따위를 일정한 자리에 알맞게 나누어 둠'이라고 정의한다.

물론 효율적인 비치도 중요하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매력적인 배치 또한 필요하다.

도서관에 적용할 수 있는 배치 방법이 있을까? 건축가 조재원을 찾아가 물었다.

## 배치, 사람의 인식을 반영하다

“책이 공간화되는 곳입니다. 한두 권의 책으로는 만들 어낼 수 없는 장대한 광경이 펼쳐지는 곳이지요.”

‘도서관이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그의 대답이다. 지식이 쌓여있다는 느낌을 시각적으로 인식하고, 나열된 지식 사이를 돌아다니는 일. 그는 자신의 대학 시절, 학교도서관이 폐가식에서 개가식으로 바뀌고, 서가 사이를 산책하듯 걷던 그 날의 기억을 여전히 갖고 있다.

“진리나 진실 등을 알고 싶을 때 사람들은 책을 읽습 니다. 직접 넓은 바다를 찾아가 탐험할 수는 없지만, 책을 통해 적어도 바닷물 한 컵을 떠먹는 느낌을 얻는 거죠. 지금 내게 필요한 지식을 손 뻗어 찾아보거나 읽어볼 ‘가능성’이 열려 있는 곳이 바로 도서관이라고 생각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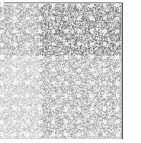
도서관은 헤아리기 힘들 만큼 많은 책을 소장하고 있 다. 이 중 사람들이 직접 만지고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일

부에 지나지 않는다. 겉으로 드러나는 책 이외에도 보존을 위해 수장하고 있는 책까지 포함하면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책을 보유한 셈이다. 매력적인 배치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인상적이었던 책의 배치가 있었 는지 묻자 조재원은 일본의 츠타야<sup>Tsutaya</sup> 서점과 무사시 노미술대학의 도서관을 꼽았다.

“두 곳 모두 독특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어요. 책 과 상품 혹은 작품이 섞이고, 그 사이마다 다양한 콘텐츠 가 있죠. 츠타야 서점의 경우 책을 찾아온 사람들이 자신 의 관심사에서 확장된 아이템들을 한 자리에서 모두 만나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행 코너로 가면 책은 물론 여행 정보, 관련 에세이, 여행 상품, 여행에 필요한 물건 등까지 다 한눈에 볼 수 있게 배열해 두었어요. 마치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펼쳐놓고 그 사이를 걷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요.”

무사시노미술대학도서관의 서가는 파리처럼 동그랗 게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 주어진 방향대로 걷다 보 면 인식의 흐름에 따라 예측되는 카테고리 of 책이 나온다. 그 사이에는 사람들이 앉아 공부하거나 책을 읽을 수 있 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니까 서가를 숲이라고 했을 때, 그 숲의 산책로를 어떻게 만들어줄 것인가, 그리고 사 람들의 인지와 어떤 연결고리를 갖게 해줄 것인가가 배치 의 요건이라고, 조재원은 말했다.

“‘소셜라이브러리’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어 요. 지식이 축적된 공간에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만나는 공간으로서 도서관 이 역할을 하는 거죠. 이때 고민했던 것은 책과 사람이 분리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었어요. 사람들이 앉고, 걷고, 서서 이야기하는 동안 그 곁에 늘 책이 있는 것. 사람들의 활동에 맞추어 책이 배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발 상에서 시작된 프로젝트였어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콘텐츠를 생산해 낸다. 그리고 이러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그 다음, 또 그 다음의 콘텐츠를 개발한다. '이 방대한 콘텐츠를 어떻게 보관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고민하는 것은 도서관의 역할 중 하나다. 사람들의 인식과 공간을 유기적으로 결합할 분류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도서관에 '큐레이션', 즉 배치가 필요한 이유이다.

#### 비어있는 단 하나의 공간이면 충분하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도서관에서 이용자들이 접하는 책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그 뒤편에 훨씬 많은 자료가 수장되어 있다. 하지만 수장의 목표 또한 기록을 보존하여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함이고, 이 자료들이 수장고를 벗어나 이용자와 만나기 위해서도 큐레이션은 필요하다. 마치 미술관에서 그들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기획하여 관람객들에게 공개하듯이.

“큐레이션은 도서관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더 친근해질 것인가의 다른 말이기도 해요. 모두 이 장소로 모이라고 호소하기 전에 책을 매개로 사람들이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뜨개질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다면 그들 곁에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공간에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뜨개질과 관련된 책과 갖가지 자료들을 배치해요.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결과물도 전시하죠. 이렇게 되면 하나의 프로모션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은 기본적인 도서관의 역할을 지속하면서 커뮤니티까지 이뤄내는 합리적인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사시노미술대학도서관 내부. 미술관, 도서관, 박물관을 일체화한 지식 복합시설로 원목의 선반들이 쌓여 서가를 이루고 있으며, 중앙은 직사각형으로 뚫려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사진 출처: 무사시노미술대학도서관

넓은 도서관의 한쪽을 기획 서고로 마련하여 그 공간에 특정 기간 주제를 잡고, 그 주제와 연관된 책들을 꺼내 배치한다. 이용자들은 필요한 자료를 찾으러 도서관에 들렀다가 그 코너에서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책과 자료들을 접하고, 그곳을 찾아온 같은 관심사의 사람들을 만나 정보를 공유한다. 이렇게 되면 도서관의 영역을 확장하는 전제가 반드시 새로운 도서관을 짓거나 증축하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 내에서 자원을 새로이 배치하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다. 그렇게 커뮤니티 안의 자산을 합리적으로 배치할 방법을 고민하고 정보를 통합하는 과정을 갖는 동안 그 도서관만의 전문성이 더욱 짙어질 것이고, 이는 그 도서관의 정체성과도 연결될 수 있다.

“보편적으로 도서관 설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도서관 운영 주체'입니다. 그리고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라는 대상이 그다음으로 이어지죠. 물론 도서관 자료의 수장 기능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만큼 책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장소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죠. 지금도서관은 무엇에 더 집중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도서관의 역할이 시대마다 다르듯, 지식이 필요한 이유도, 지식에 접근하는 방식도 변하기 마련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사람들이 책에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책만이 갖는 정보의 차별성과 사람들이 그것을 취하는 방식이 배치 방식에 반영되는 것이라고 조재원은 덧붙였다.

“책을 어떻게 비치할 것인가가 아니라 책과 사람, 사람과 사람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생각할 때 책을 관리하고, 업데이트하고, 분류하는 등의 작업이 결정될 겁니다. 지나치게 트렌드만을 따른다면 지속성을 놓칠 수밖에 없죠.”

#### 사서의 역할, 정보의 관리에서 정보의 운용으로


이용자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 책을 배치한다는 것은 결국 이용자의 인지와 행동을 모두 파악하고 예상하여 특정한 장서목록을 구축하는 일이다. 이용자가 어떤 패턴으로 자료를 찾는지, 분류 내에서 특별히 어떠한 정보가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모인 자료들을 어떻게 배치할지까지 모두 고려해야 한다. 도서관에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사서다.

“사람들은 신문, 잡지 등의 서평보다 내가 신뢰하는 사람의 추천에 기대하는 것이 더 커요. 반드시 명사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내가 관심 두는 사람의 추천이라면 읽어보고 싶어지기 마련이죠. 도서관에서 책을 소개하고,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은 사서입니다. 사서의 역할은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사서가 이러한 일을 원활히 해내기 위해서는 도서관의 정보 공유 방식을 일방적으로 고민하는 것보다 이용자가 반응할 사람들의 지식과 자원을 활용하면 훨씬 다양한 배치를 시도할 수 있다. 이를테면 도서관을 잘 활용하는 이용자들이 책과 접촉되는 방식을 연구한다거나 혹은 도서관 밖의 시야를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구하는 방식 등.

“책을 제공하는 측면에서의 일방적인 배치보다 사용자가 책에 접근하는 패턴을 드러나게 환경을 만들고, 그것을 관찰하는 거죠. 온라인 서점이 이런 일을 참 잘합니다. 고객의 구매 목록, 찾아본 책, 관심 분야, 구매 시기, 접근 방식 등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고객 특성을 활용한 정보를 제공하죠. 여기에 도서관이 가진 '공간'이라는 강력한 힘이 더해지면 훨씬 무궁무진한 서비스를 창출해낼 수 있을 겁니다. 이는 사서의 역할이 정보의 관리에서 정보의 운용으로 확장되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모든 공간이 디자인된 곳에서 사람들은 쉬이 피로를 느낀다. 인식을 건드릴 만한 어느 한 부분이 있어야 한다. 전체 건물 중 비어있는 방 하나라거나 서가 사이의 진열대 하나라도 좋다. 그 공간을 기획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은 어떨까.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생생하게 살아있는 책과의 호흡이다. 이제는 보존 가치가 높아져 손에 닿을 수 없는 곳으로 흘러간 책의 흔적을 뒤쫓는 것보다는. 

글: 최민영



#### 이 스튜디오 대표 조재원

삶과 공간을 엮는 연결고리의 확장을 목표로 활동하는 건축가. 창작공간추진단 전문위원, 서울문화재단, 도시공공디자인사업 평가위원, 문화로 재래시장활성화 프로젝트 공간 디렉터, 행복한 학교만들기 전문위원(이상 문화체육관광부 유네스코 국제워크숍 튜터 등을 역임하며 '공간'에 대한 고민을 지속하고 있다.